

멋드러진 기와곡선 '정신과 손'의 합작품

'변와장(翻瓦匠)'이란 지붕의 기와를 잇는 장인을 말한다. 이근복 선생은 우리나라 최초로 중요무형문화재 변화장이 됐다. 일반인들에게 조금은 생소한 변화장인 이근복 선생을 만나러 가는 날은 참으로 추웠다. 두툼한 털옷을 입었지만 얼음같이 차가운 바람은 외투 속을 사정없이 비집고 들어왔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근복 선생은 전수 교육장에서 기와 잇는 실습을 지도하고 있었다.

작업장 옆에 마련한 기와 전시실을 둘러보았다. 이곳에는 궁궐을 수리하면서 버려진 기와들이 전시되어 있다. 이근복 선생은 덕수궁 대한문·경복궁 수정전·창덕궁 돈화문·서울 종묘(정전) 등 수십 차례나 궁전의 수리와 복원작업에 참여했다. 그때 버려지는 기와 일부를 문화재청의 허락을 받아 이곳에 전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와의 전통을 엿볼 수 있는 좋은 교육장이기도 하다.

수키와·입키와·수막새·암막새를 비롯하여 악귀의 침입을 방지하려는 벽사의 상징인 귀면기와, 용마루의 양쪽 끝에 설치되는 치미(鸚尾) 등 궁궐을 축조하는데 사용되었던 다양한 기와들을 볼 수 있었다. 궁전이나 관아의 큰 건물에만 사용되었던 잡상(雜象)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다. 잡상은 내림마루나 귀마루 위에 한 줄로 얹히는데 신선·법승·기인·괴수·저팔계 등 다양한 모양으로 제작되었다.

이근복 선생이 변화장의 길을 걷게 된 인연은 아버지로부터 시작되었다. 시골에서 건축업을 하였던 아버지는 혼자서 목수

하여 사재(私財)로 전수교육장을 따로 마련하여 후학들에게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가르쳐 주는데 여념이 없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남김없이 전수해 주자는 것이 이근복 선생의 교육철학이다.

사십년이 넘는 세월동안 이근복 선생의 손을 거쳐 간 건물은 200여 채가 넘는다. 경복궁 수정전·창덕궁 돈화문·안동 봉정사 극락전·보은 법주사 대웅전·프랑스 고암 이응로 화백 자택 등을 보수공사 했다. 그리고 경복궁 근정문·경복궁 흥례문을 복원했으며, 진천 보탑사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을 신축하였다. 1997년에 서울 송례문을 보수했는데, 2008년 화재로 전소되어 버린 것이 두고두고 가슴 아프단다.

"저는 후학들에게 문화재가 소중하다는 정신교육부터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와를 잘못 이으면 문화재가 훼손될 가능성이 많기에 정신교육부터 시켜야지요. 그래서 문학생들에게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라고 합니다."

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 날림공사를 한다면 국가도 이만저만 손해가 아니지만, 자신이 작업한 것이 기록으로 남게 되면 개인으로 봐서도 명예가 실추되는 등 손해가 크니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최고가 되도록 노력해야 함을 당부한다.

우리 지붕의 용마루나 처마 곡선은 세계적이다. 그 아름다운 곡선은 오랜 숙련과 기술이 축적되어야 가능하다. 지붕은 서까래 곁고 개판 덮으면서 목수의 손을 떠나 변화공에게로 넘어가는 것이다.

법주사 대웅전 돈화문 등 200여 건물 기와 올려 "기와 잘 이어야 건물의 멋 수명 제대로 유지"

일 부터해서 기와 잇는 작업과 미장까지도 거뜬히 해내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등 너머로 집짓는 일을 보아왔고, 성장하고서는 아버지 밑에서 집짓는 일을 배웠다.

"아버지로부터 집을 짓는데 필요한 여러 작업을 골고루 배웠는데, 기와를 잇는 작업은 참으로 매력적이었어요. 기와만 잘 이으면 비가 새지 않기 때문에 목조건물은 썩을 염려가 없으며, 썩지 않는다면 천년은 거뜬히 건다는 것이 너무 신기했지요."

콘크리트 집도 아니고 나무로 지은 집이 천년을 지탱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대단해 보여 기와 잇는 일에 평생을 바치겠다고 결심한 것이다. 아버지로부터 건축에 관한 잡다한 일들을 배웠지만 본격적으로 변화 작업을 배운 것은 1978년부터이다. 서울에서 고(故) 기선길씨를 비롯하여 여러 스승으로부터 배웠다.

이근복 선생은 일에 대한 욕심이 많은 분이다. 그는 스승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흠뻑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데도, 스승님은 자신의 기술을 온전히 전수해 주지 않았다. 공사장에서 일을 할 때면 남보다 빨리 짐승을 먹고는 작업 중인 지붕으로 올라갔다. 작업하다가 둔 일을 혼자서 이리저리 궁리해가며 실습 삼아 해보았다. 그렇게 해보고 나서는 행여 스승이 알까 싶어 작업한 것을 다시 뜯고 제자리로 돌려놓았다. 그렇게 공부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우리나라 전통 기와 잇는 공법을 터득함과 동시에 문제점을 찾아내어 그것을 고쳐나갔다. 이근복 선생은 스승으로부터 배운 변화 기술을 전승하는 것은 물론이고 현대에 맞게 잘 활용하고 있기에 높이 평가받고 있다.

한때는 일거리가 없어 생계를 잇기 위해 잠시 포장차차를 한 적도 있었으며, 힘든 작업에 비해 보수가 턱없이 적을 때도 많았다. 하지만 한 번도 전통문화를 전수해나가는 이 일을 그만 두겠다는 생각을 해 보지 않았다고 하니 우리 문화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깊은지를 느낄 수 있다. 그는 전통 변화 기법의 보존을 위

지붕마루는 집의 윤곽선을 이룬다. 집의 모습을 좌우하는 한 부분이 되며 멀리서 보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기도 하다. 지붕마루는 평면적으로는 직선이지만, 실제로는 모두 곡선이다. 지붕마루는 목수가 어느 정도 마루곡선을 결정지었다 해도 그 곡률(曲率)은 변화공의 솜씨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이 된다. 그러니 기와를 잇는 작업 또한 목수일 못지않게 중요하다.

어름철 피막비에 달았던 기와가 갑자기 소나기가 와도 터지지 않고, 겨울 추위에도 동파되지 않는 좋은 기와가 첫 번째 조건이다. 지붕이 오래 가느냐 아니냐는 느끼게(통나무를 반쪽)로 타낸 것(와)과 적심(스리게 위로 통나무를 차곡차곡 채우는데, 그런 통나무를 일컫는다)이 좌우한다. 변화공은 적심을 재고 그 사이에 진흙을 가져다 붓고는 그 흙을 밟으면서 기와 잇는 작업을 계속 해야 하는데 보통 힘 드는 것이 아니란다. 발은 자꾸 미끄러지지 허리는 아프지, 땀은 눈으로 코로 들어가고..... 정말로 기와를 잇다가 지붕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은 사람도 더러 있다고 하니 힘든 일임에는 틀림없다. 특히나 요즘은 기와는 우리 알처럼 너무 매끄러워 작업하기가 더욱 힘들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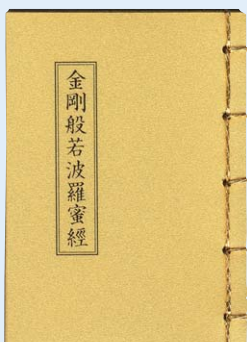
재래기와는 태토에 약간의 모래를 섞어서 만들었으며, 두꺼비 가죽에서 나무로 불을 태워 구웠기에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끼가 끼고 더욱 멋스러워지는데, 현대 기와는 너무 번쩍거리고 세월의 때라 할 수 있는 이끼가 자라지 않기에 옛날처럼 멋이 없는 것이 아쉽다고 했다.

지붕 잇는 것에 대한 작업을 직접 듣고 보고 나니 손수 집 한 채를 지은 것처럼 뿌듯하다. 사라져가는 전통 변화 기술을 전승하는데 거의 반평생을 바쳐 온 이근복 선생이 계신다는 것이 참으로 다행스럽기만 하다.

글·사진=문윤정(수필가·본지 논설위원)



불경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복상불소영
장량장가
의식식사용
도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 108염주 단주
흑단목염주 / 흑단목염주천주
크기 : 8mm×10mm×12mm 55,000원
10mm×10mm×12mm 65,000원
12mm×10mm×12mm 85,000원
흑단목염주는 기력이 저하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흑단목포대화상향로
(대) 26×16×16cm 135,000원
→ 향로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있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
과 복판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일에서 향
이 뿜어져 나와 예술시에도 사용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하신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양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
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입니다.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 1143-12-049474 송명화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온열복대 의료기기인증 의료용전자발생기
전기용품 안전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시험필, 전자기파 환경인증
실용신안출원

신약형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온열복대
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속담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속담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속담(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격외선 "열침"**이 팽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됩니다. 차가운배, 허리 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들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307 정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